

ㅅ(>△)의 유지와 탈락*

위진(전남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ㅅ>△의 형태론적 조건 |
| 2. △의 음소 자격 | 5. 맺음말 |
| 3. ㅅ>△의 음운론적 조건 | |

1. 머리말

△는 전남방언에서 대부분 ㅅ에 대응한다. 이런 까닭에 △에 대한 연구는 기원을 밝히는 데에서 시작된다. 대체로 △의 기원은 유성음 사이에서 ㅅ가 △음화했다는 설과 본래 음이었다는 설로 나뉜다.

이승녕(1960, 3~175)은 △를 -s- intervocalique가 전후모음에 의하여 extension de la sonorité의 원리에 의해서 -z- intervocalique로 sonorisation을 거친 것으로 본다. 그리고 -s- intervocalique가 △음화함에 음절 말음이 모음 또는 l, m, n일 때가 가장 좋은 조건이며, 이는 그 선행모음에 sonorité를 강화하므로 △음화현상에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기문(1972, 1998)은 중세국어 모음간에 ㅅ가 유성음화되지 않은 예가 허다하고, 국어에서 ㅅ는 모음간에서도 유성음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ㅅ>△의 유성음화설을 부분적으로 반박한다. 그는 중세국어의 △를 『계림유사』의 시대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51-A00072)

이전으로부터 내려온 것과 13세기 이후에 s>z로 변화한 것으로 구분한다. s>z는 y, ㄹ, ㄴ, ㅍ와 모음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며, 이러한 ㅅ와 △(‘두식’와 ‘두식’)의 대응은 고형과 신형이 아닌 서로 다른 방언형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기문(1972, 1998)의 견해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첫째, 중세국어의 △가 음소인지, 이음인지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 『계림유사』 이전부터 내려온 △는 음소인 반면에, 13세기 이후에 ㅅ에서 유성음화한 △는 이음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가 고유한 음소인 동시에 ㅅ의 이음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형태소 내부의 모음간 △는 전남방언에서 주로 ㅅ에 대응된다. 중세국어 ‘무수, 어스름, ㄱ술’의 전남방언은 ‘무시, 어시름, 가실’이다. 이때의 △는 『계림유사』 이전의 음에 해당하므로 전남방언에 △ 또는 ∅(<△)로 나타나야 하는데, 현실은 ㅅ에 대응된다. 곧 음소설로는 전남방언의 △:ㅅ 대응을 설명할 수 없다.

최명옥(1978)은 중세국어와 방언 사이에 나타난 △와 ㅅ의 대응을 △>ㅅ의 변화로 풀이한다. 동남방언에 ㅅ를 유지한 형태가 주로 나타나지만 탈락한 형태도 나타남을 밝히고, 이러한 ㅅ탈락형을 근거로 동남방언에도 △가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앙방언 △가 동남방언 ㅅ에 대응되는 까닭은 중앙방언에서 일어난 △>∅의 변화 시기보다 앞서서 △가 ㅅ에 합류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ㅅ의 변화도 음운론적 문제점을 남긴다. △가 ㅅ로 변하는 것은 강화현상이다. 여러 언어에서 약화현상이 강화현상보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음성적 가능성 측면에서 △>ㅅ의 변화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살피는 과정에서 본고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전남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송녕(1960, 94~105)에 의하면 △와 ㅅ의 대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강진)이다. 그러므로 △와 ㅅ의 대응은 전남방언을 토대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중세국어의 △가 음소인가라는 점이다. 음소와 이음은 최소대립쌍의 성립 여부와 상보적 분포로 구분한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에서 △와 ㅅ가 음소인지, 이음인지는 최소대립쌍과 그 분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국어사 문헌¹⁾과 방언 자료²⁾를 토대로, 중세국어와 전남방언에

1) 국어사 문헌이란 △가 표기된 15~16세기 문헌들을 이른다. 본고는 『훈민정음』 해례본

나타난 △와 ㅅ의 대응을 고찰할 것이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가 음소의 자격을 갖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가 ㅅ에서 유성음화한 이음이라면, 유성음화가 적용된 형태·음운론적 조건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2. △의 음소 자격

△에 대한 설명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에 처음 나타난다.

- (1) △는 半·반齒:청音흙·이·니 如聲穰양 ㄱ字:종 初총發:뵈聲성 ㅎ·니·라<훈민 언,009a>△ 如 아스 爲弟 :너시 爲鵠<훈민해,056>

『훈민정음』에서는 △의 음가를 반치음의 불청불탁으로 설명하고, 용자례로 ‘아스, :너시’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훈민정음』 창제자는 △를 음소로 파악한다.

그런데 실제로 △가 음소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ㅅ와 △가 최소대립쌍을 이루는가와 그 분포가 불규칙적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의 예를 살필 필요가 있다.³⁾

- (2) ㄱ ㄹ술<월석,20,35a>, ㄱ세<월석,1,44b>, 이속고<석상,11,026b>, 보속<훈몽,중,007a>, 아스<훈민해,56>, 나시<훈몽,상,7b>, 겨슬<석상,3,41b>, 거의<법화,서,21a>
 ㄴ 설설<몽산법,간,043a>, 섬섬<금삼해,5,027a>, 삼삼<두시초,11,020a>
- (3) ㄷ 두서(둘+ㅅ)<월석,1,6a>, 한숨(한+숨)<월석,서,1,023a>, 새삼(새+삼)<훈몽,상,004b>
 ㄴ ㄱ애(ㄱ+애)<두시초,10,033b>, 낫나치(낫+낫+이)<법화,06,038a>, 겹와시(겹+와시)<금강해,4,022a>
 ㄷ 우슴(웃+슴)<석상,13,22a>, 기슴(기+슴)<월석,10,019a>

(1446), 『훈민정음』 언해본(1447), 『석보상절』(1447), 『용비어천가』(1447), 『월인석보』(1459), 『능엄언해』(1461), 『법화경언해』(1463), 『번역소학』(1518), 『속삼강행실도』(1514), 『훈몽자회』(1527)를 검토하였으며, 『월인천강지곡』(1447),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467), 『두시언해』 초간본(1481), 『금강경삼가해』(1482)를 참고하였다.

- 2) 방언 자료란 『전남방언사전』과 『한국방언자료집VI-전라남도편』을 이른다.
 3) △의 예에 대한 분석은 이승녕(1960)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4) ㄱ 깊 그새(ㄱ+-애)<석상,03,012b>, 겪는 그시라(ㄱ+-이라) 흐며<월석,01,032b>
 그 즈시(ㄱ+-이) 一萬 가지라<월석,21,024a>, 容은 즈시오(ㄱ+-이오)<석상,20,015a>
 ㄴ 서르 니셔(ㄴ+-어) 긋다 아니 흐며<법화,2,134a>
모든 사라미 다스며(ㄴ+-으며) 恭敬 흐리라<석상,21,08a>
- (5) ㄱ 어우러ㅅ 소리 이느니<훈민언,013a>, 오늘ㅅ<법화,02,231b>
흐습시는 쁘디시니라<훈민언,002b>, 하늘 기브로 안스ㅅ<월석,02,038a>
 ㄴ 오늘날(오늘+ㅅ+날)<용가,056>
- (6) ㄱ 쇼호-(容恕)<월석,02,070b>, 숯(掃)<석상,11,22b>, 숯(擣)<훈몽,하,010a>
 ㄴ 넬실(來日)<두시초,03,045b>, 과연히(果然-)<번소,08,020b>, 인스(人事)<월석,20,81b>

(2)~(5)는 △를 가진 순우리말이다. (2)는 형태소 내부의 어두 위치나 모음 사이에 △가 쓰인 단어이다. (2) ㄱ은 △가 모음 사이에 나타난 경우이고, (2) ㄴ은 어두에 나타난 경우이다. ‘설설, 섬섬, 삼삼’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제외하고 △가 어두에 오는 일은 거의 없다. 형태소 내부의 △는 대부분 모음 사이에서 확인된다.

(3)은 형태소 경계에 △가 오는 합성어와 파생어이다. (3) ㄱ은 후행어의 두음 사가 선행어의 말음 y, r(>0), ㄴ 뒤에서 △로 변한 경우이고, (3) ㄴ은 선행어의 말음 s, t가 유성음 뒤에서 △로 변한 경우이다. (3) ㄷ은 파생어로, 선행어의 말음 s가 △로 변한 경우이다. 이때의 △는 본래 s를 가진 단어인데, 선·후행하는 유성음에 의해서 유성음화한 것이다.

(4)는 말음 s가 곡용 또는 활용하면서 △로 변한 단어이다. (4) ㄱ은 s로 끝난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여 곡용한 경우이고, (4) ㄴ은 용언의 어간 말음 s가 활용한 경우이다. 곡용과 활용에 의해 생긴 △도 s에서 변화한 공통성을 보인다.

(5)는 △를 가진 문법형태소이다. 강조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 ‘-ㅅ’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이형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어가 모음이나 r로 끝난 경우에만 나타난다. 객체 존재 선어말어미 ‘-습-’은 선행어가 모음이나 유성자음인 환경에 나타나서, ‘-습-, -줍-’과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ㅅ, -습-’은 원래 △를 가진 형태소이나 유성음 사이에서만 쓰인다. 그러므로 ‘*-ㅅ, -습-’에서 변한 것으로

4) ‘긋’은 어말에서 ‘긋’과 ‘긋’으로 혼기된다.

그지 업스며 ㄱ 업슨<1447석상,19,024a> || 卜年이 ㄱ 업스시니<1447용가,125>

추정이 가능하다. 반면에 (5)ㄴ은 합성어 사이에 개재된 사이 ㅅ인데, 유성음화하여 △로 나타난다.

(6)은 △를 가진 차용어와 한자어이다. 차용어와 한자어의 △는 日母에 대응하는 음으로 어두에 올 수도 있고, 선행 발음의 자질과 상관없이 나타난다. ‘직심<여씨향약언해,004b>, 납염혀<훈몽,하,007b>’과 같이 선행 발음이 무성자음인 환경에서도 쓰인다.

(2)~(6)의 예를 살펴보면, 형태소 경계(합성어, 곡용, 활용, 사이 ㅅ)의 △는 모두 ㅅ에서 유성음화한 음이다. 그리고 문법형태소 ‘-ㅅ, -습-’도 출현하는 환경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ㅅ에서 유성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형태소 내부의 △만은 그 기원을 추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 예를 토대로 중세국어에서 △가 음소였는가를 확인할 차례이다. 중세국어에서 △와 ㅅ가 모두 음소였다면, 두 음소는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7) 숯(樵) : 숯(俗)<몽산법,간,047b>
- 실(日) : 실(虺)<훈몽,상,12b>
- 심(任) : 심(菑)<훈몽,상,6b>
- 신(人) : 신(辰)<훈몽,상,1a>

중세국어에서 △와 ㅅ가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예이다. 그런데 모두 차용어와 한자어이다. 『동국정운』에서는 중국의 36자모를 23자모로 표시한다. 心母와 審母는 戌(畝)母로 쓰고, 日母는 穰(尙)母로 쓴다.(이돈주 1988, 19~22) 그래서 한자어의 ㅅ와 △는 의미를 변별하며, 음소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순우리말에서는 △와 ㅅ가 최소대립쌍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형태소 경계의 △는 ㅅ에서 변한 것이므로 최소대립쌍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순우리말 형태소 내부의 △만 검토 대상이 되는데,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었다.⁵⁾

5) 본고의 무지로 최소대립쌍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고가 최소대립쌍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단어(순우리말 형태소 내부의 △)는 48개로, 예문(15)에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순우리말에서 △가 ㅅ의 이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래서 본고는 순우리말에서 △는 ㅅ의 이음이며, △는 유성음 사이에서 ㅅ가 유성음화한 결과라는 가설을 세워 본다.⁶⁾ 그런데 이 가설은 ㅅ와 △가 상보적 분포를 보여야만 성립될 수 있다.

△와 ㅅ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ㅅ가 순우리말 모음 사이에 쓰인 경우를 고찰하였다.

- (8) 디새<석상,13,051b>, 남상<훈민해,058> || 7) 각시<석상,03,025b>
 (9) ㄱ 대습<월석,08,099b>, 왼손<월석,08,097b>, 한쇼<용가,087> || 목소리<훈민언,008a>
 ㄴ 젓어미<석상,03,004b>, 못아스<월석,14,006a> || 빛꽃<훈민해,042>
 (10) ㄱ 날 거슬 도즈굴 好生之德이실씩<용가115> || 짓과<석상,03,023b>
 기픈 모새 열본 어르름 하늘히 구티시니<용가,030> || 못과<월석,02,027b>
 ㄴ 免은 비슬 씨라<석상,03,017a> || 벗고져<석상,20,012a>
 寶塔이 소스시니<월석,21,191a>
 (11) 太子드려 나샤<석상,03,001b> || 헝습시논<훈민언,002b>
 險흔 길헤 어우러 덕하사이다<월석,22,009b> || 헝습사이다<석상,03,003a>
 어셔 나쇼셔<석상,03,022b>
 막습거늘<월인천,상,036b>

(8)~(9)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ㅅ가 쓰인 단어이다. 이들은 유성음 사이에서도 △로 유성음화되지 않고, 선행어가 유성자음이 아닌 환경에도 나타난다. (10)은 ㅅ 발음을 가진 단어가 곡용 또는 활용하는 경우이고, (11)은 ㅅ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시-, -사이다, -쇼셔, -습-)이다. 이들도 선행행하는 음운의 자질에 상관없이 나타난다.

(2)~(11)에서 고찰한 ㅅ와 △의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이송녕(1960)도 본고와 같이 ㅅ>△의 유성음화를 주장하지만, 당시의 △가 음소 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를 ㅅ의 이음으로 보는 점에서는 본고와 차이를 보인다.

7) || 는 음운론적 환경을 구분하는 표시이다. || 의 앞은 모음 사이 또는 ㄴ·ㄹ·ㅁ 와 모음 사이에서, || 의 뒤는 ㄴ·ㄹ·ㅁ 이외의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타난 예이다.

		모음 사이	ㄴ·ㄹ·ㄱ와 모음 사이	ㄴ·ㄹ·ㄱ 이외의 자음과 모음 사이
형태소 내부		ㅅ · △	ㅅ	ㅅ
형태소 경계	합성어	ㅅ · △	ㅅ · △	ㅅ
	곡용	ㅅ · △	ㅅ	ㅅ
	활용	ㅅ · △	ㅅ	ㅅ
문법형태소	-ㅅㅅ	△	△	×
	-ㅅㅅ-	△	△	×
	-ㅅㅅ-	×	×	ㅅ
	-ㅅ-	ㅅ	ㅅ	ㅅ
	-ㅅ이다	ㅅ	ㅅ	ㅅ
	-ㅅㅅ	ㅅ	ㅅ	ㅅ

△는 유성음 사이에서만 나타난 반면에, ㅅ는 음운론적 환경에 상관없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ㅅ와 △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ㅅ>△의 유성음화에 의한 △ 이음설은 난관에 부딪힌다. 그러나 (3)~(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형태소 경계의 △는 분명히 ㅅ에서 변화한 것이다. 상보적 분포와 상관없이 ㅅ의 이음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환경은 형태소 내부인데, 이기문(1998, 79)도 ㅅ>△의 음운론적 조건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를 『계림유사』 이전부터 있던 음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형태소 내부의 △는 전남방언에서 주로 ㅅ에 대응한다.

- (12) 겨슬<석상3,41b> : 저실[전역⁸⁾], 저슬[나주]
- 꺾슴<월석12,41b> : -까심[담양·평산·나주·진도·고흥·완도]
- 모시<훈몽,중,1b> : 모시[전역]
- 아수·아시<훈민해56> : 이수, 아시[완도]

위의 예는 형태소 내부의 △가 ㅅ에서 발달한 것임을 시사한다. 형태소 내부의 △를 본래에 존재하는 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의 예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남방언에 나타난 형태소 내부의 △:ㅅ 대응은 본고의 가설인 ㅅ>△ 유성음화에 의한 △ 이음설을 뒷받침한다.

8) []는 해당 방언형이 쓰이는 전남의 지역을 표시한다.

하지만 이 가설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기문(1972, 1998)이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형태소 내부에 나타난 ㅅ>ㅈ 변화의 적용 조건을 밝힐 수 없다는 문제이다. 음소설을 주장하는 첫째 근거가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는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ㅅ와 ㅈ의 음운론적 환경을 모두 분석한다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후술할 3장과 4장에서는 ㅅ>ㅈ 변화의 적용 조건을 고찰할 계획이다. 그리고 ㅈ의 음소설은 자체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는 ㅈ를 『계림유사』 이전의 음과 ㅅ에서 유성음화한 음으로 나눈다. 그렇다면 『계림유사』 이전의 음은 음소로 보고 합성어 경계에서 ㅅ>ㅈ로 변한 음은 이음으로 본 것인데, 같은 시대에 ㅈ[z]가 독립적인 음소와 ㅅ의 이음으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계림유사』 이전부터 ㅈ로 발음된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단어들이 있다.

- (13) ㅈ애<두시초10,033b> : 剪曰割子蓋<계림유사>
 ㅈ위<구급간, 목록, 6b> : 居乎, 居兒乎, 居叱□乎<향약구급방>

이기문(1972, 24~26)은 『계림유사』의 ‘割子蓋’를 [*kʌzɡai]로 재구하고, 중세국어 ‘ㅈ애’에 대응시킨다. 그리고 『향약구급방』의 ‘居兒乎’를 [*kəzɦui]로 재구하고, 이보다 앞선 단계에는 [*kəzɡü], [*kəzrü]일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이것은 ‘ㅈ위’에 대응된다. 그는 下野六郎이 ‘割子蓋’를 동남방언 [kasigɛ]와 관련시켜 [*kasigai]로 재구하고, 이것이 16세기의 ‘ㄹ새[kʌzai]가 되었다는 결론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라 한다. [g]의 탈락은 ‘ㅈ애’의 ㅈ가 [z]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ㅈ가 『계림유사』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ㅈ애’는 *ㅈ+애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ㅈ-이 ‘ㅈ-’으로 유성음화한 것으로, 그 기원은 ㅅ이다. 그리고 유성음화한 과정은 전남방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 (14) ㅈ애 : 가세[전역(승주, 광양계외)]

가시개_[곡성·승주·구례·보성·고흥·여수·순천], 가시개_[광양·여천], 까시개_[광양·여천], 가
 세끼_[보성], 가세기_[순천], 가지개_[고흥]
 거쉬 : 거시_[담양·곡성·광양·장성·무안·해남·장흥·보성·고흥], 거세_[진도]
 거세이_[신안], 거쟁이_[보성·신안·진도·여천], 꺼쟁이_[완도]

전남방언에서 ‘즈애’는 ‘가세, 가지개’로, ‘겅위’는 ‘거시, 거세이’ 등으로 나타난다. 전남방언 ‘가시개’는 『계림유사』의 ‘割子蓋’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가시개’가 더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가시개’는 ㅅ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割子蓋’는 △[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곧 ‘가시개’의 ㅅ가 모음 사이에서 △로 유성음화하여 ‘割子蓋’가 되고, 이것의 어중음이 탈락하여 ‘즈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즈애’는 『계림유사』 이전부터 △가 존재한 근거가 되며, 나아가서 ㅅ>△ 유성음화의 발생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ㅅ>△ 유성음화는 『계림유사』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현대국어의 ㅅ는 유성음화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가령 ㅂ가 모음 사이에서 유성화하는 것은 그것에 대응하는 유기음 ㅃ의 유기성이 이 환경에서 약화되어 그것과 충분한 거리를 가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유기음을 가지지 않은 ㅅ는 유성음화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이기문 1972, 35) 그런데 한국어의 유기음과 경음은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ㅅ에 대응하는 유기음이 없는 사실과 유성음화와는 관련성이 적다. 하지만 본고도 왜 ㅅ가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 유성음화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했다. 다만 현대국어에서 파열음과 파찰음 ㄱ, ㄷ, ㅂ, ㅈ가 유성음 사이에서 [g, d, b, ʃ]로 유성음화하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마찰음도 유성음화되었을 개연성을 추측할 뿐이다.⁹⁾

이상으로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순우리말 △와 한자어 △의 음소 자격을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자어의 △는 ㅅ와 의미를 변별하므로 음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순우리말의 △는 ㅅ와 최소대립

9) 다른 장애음(ㄱ, ㄷ, ㅈ)과 달리, 중세국어의 ㅅ가 유성음 사이에서 △로 유성음화하고 다시 탈락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유성음화되지 않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유성음화 과정을 거친 ㅂ(>ㅃ>ㅍ)가 현대국어에서 유성음화되는 것을 보면, 그런 추측도 가능성이 낮다.

쌍을 이루지 못하고, 그 기원은 ㅅ에서 유성음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순우리말 △는 ㅅ의 이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어사 문헌에서 아음·설음·순음의 유성음 [g, d, b]를 표기하지 않은 반면에, 치음의 유성음 [ㄱ]를 표기한 것은 한자음의 표기와 관련된 듯하다. 중세국어 한자음에서 아음·설음·순음의 무성음과 유성음은 의미를 변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성음에 해당하는 자소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치음의 무성음 [s]와 유성음 [ㄱ]는 각각 戌母와 穰母(日母)에 대응하기 때문에 자소를 두 개로 설정한 것이다. 이처럼 한자음을 적기 위한 ㅅ, △의 자소 설정이 순우리말 치음 ㅅ의 유성음 표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ㅅ>△의 음운론적 조건

순우리말의 △를 ㅅ의 이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ㅅ>△ 변화의 적용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승녕(1960, 70~72)은 평순모음 ‘·(32%), -(26.9%), | (15.4%)’를 ㅅ>△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조건이라 한다. 특히 ‘·, -’의 동모음 사이에서 △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¹⁰⁾ 그런데 그는 ㅅ>△의 형태론적 환경을 구분하지 않았고, 후행하는 모음의 특징만을 분석하였다.

ㅅ>△의 변화는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의 합성어, 곡용, 활용에서 나타나며, 이들의 변화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이 형태소 내부이다. 앞선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ㅅ>△의 변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며 적용규칙을 찾기도 어렵다. 그래서 본고는 형태소 내부에 국한하여 △의 음운론적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10) 이승녕(1960, 41~85)은 △음의 연결관계를 모음과 ㄴ·ㄹ·ㅁ 간이라고 기술하고, 후행하는 모음, 어두의 자음, 말음, 성조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ㅅ>△ 유성음화는 후행하는 모음이 ‘·, -, |’ 일 때에 우세하게 발생하며, 말음으로는 ㅂ, ㄷ, ㄱ을 가지기 싫어한다. 그리고 어두의 자음과 성조는 ㅅ>△ 유성음화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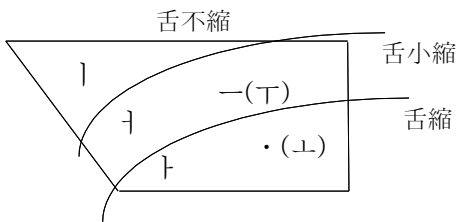
- (15) 가스멸- <훈몽,하,11b>, 거취 <훈몽,상,11b>, 거취 <법화,서,21a>, 거슬 <변소,9,32b>, 구시 <훈몽,중,10a>, 그세 <월석,1,44b>, 그스기 <능엄,7,87a>, 그스름 <훈몽,하,15a>, 그속ㅎ <월석,13,51b>, 나시 <훈몽,상,7b>, 너시 <훈민해,56>, 마손 <석상,3,14b>, 마술 <훈몽,중,4b>, 모시- <훈몽,중,1b>, 무수 <변소,10,28b>, 므취- <석상,24,52a>, 물자새 <훈몽,중,8a>, 보소 <훈몽,중,7a>, 브섭 <훈민해,57>, 브스름 <속삼,10a>, 수수- <두초,10,20>, 아소 <훈민해,56>, 아소라히 <변소,9,98a>, 아소로의- <훈몽,하,11a>, 아스미 <변소,7,17a>, 아슴 <법화,2,224b>, 아버지 <변소,4,23b>, 어스름 <훈몽,상,1a>, 어시 <석상,6,5a>, 여숙 <법화,2,110a>, 요조숨 <변소,9,26a>, 이속고 <석상,11,26b>, 조스름 <석상,6,37b>, 즈서리 <월석,22,26b>, 즈슴 <능엄,4,24b>, 즈취 <훈몽,하,5b>, 호사 <속삼,22a>, ㅁ술ㅎ <석상,3,5a>, ㅁ슴(<감>) <법화,2,136a>, ㅁ슴알- <변소,9,108b>, ㅁ즈식 <월석,1,13a>, ㅁ술 <훈몽,중,5a>, ㅁ슴 <변소,10,27a>, ㅁ스와미- <월석,14,25a>, ㅁ식- <훈몽,하,1a>, ㅁ시 <용가031>, ㅁ즈- <변소,9,59b>, ㅎ오슴 <월석,22,71b>

국어사 문헌에서 형태소 내부의 △를 가진 단어는 48개이다. 이 외에도 『이조어사전』의 표제어를 검색한 결과 ‘가마조시, 갓ㅁ슴(劣想), 고술, 골아샤, 미조슴, 흐슴르러하다, ㅁ스라기’ 등을 더 확인했다.

본고는 순우리말에서 △는 ㅅ에서 유성음화한 결과라는 가설을 세웠다. 유성음화는 공명도가 적은 무성자음이 공명도가 큰 모음 사이에 위치하여, 두 모음의 공명도에 동화되어 공명도가 큰 유성자음으로 변하는 음운현상이다. 그렇다면 ㅅ>△의 동화주는 선·후행하는 모음이 된다. 곧 유성음화의 적용환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선·후행하는 모음의 자질을 살펴야 한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중세국어 단모음의 음가를 舌縮과 口蹙의 자질로 설명한다. 중세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다음과 같다.¹¹⁾

11) 본고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을 충실히 반영한 김완진(1978)의 단모음 체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모음체계를 따른다. 그러나 중세국어 모음체계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한영균(1997, 457~489)을 참고하기 바란다.



舌縮·舌小縮·舌不縮은 혀의 움츠림을 뜻하고, 口蹙·口張은 원순성을 뜻한다. 그러므로 소리가 깊은 설축 모음에는 ㅣ, ㅑ, ㅓ가, 소리가 깊지도 얇지도 않은 설소축 모음에는 ㅑ, ㅓ, ㅕ가, 소리가 얇은 설불축 모음에는 ㅣ가 해당된다.¹²⁾ 그리고 ㅣ, ㅑ, ㅓ, ㅕ, ㅜ는 口張의 평순모음이며, ㅕ, ㅓ는 口蹙의 원순모음이다. (15)에 제시한 △의 선·후행모음을 위의 단모음 체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³⁾

●설축

· ~ ·	· ~ ㅑ	ㅓ ~ ㅓ	ㅑ ~ ㅑ	ㅓ ~ ㅓ	계
8	8	4	1	1	22

●설소축

ㅓ ~ ㅓ	ㅓ ~ ㅑ	ㅑ ~ ㅕ	ㅕ ~ ㅕ	계
8	6	1	2	17

●설불축과 다른 모음

ㅣ ~ ·	ㅣ ~ ㅑ	ㅣ ~ ㅓ	ㅣ ~ ㅑ	ㅣ ~ ㅓ	ㅣ ~ ㅕ	계
1	1	1	1	3	1	8

△로 표기된 단어는 설축 모음간에서 22개, 설소축 모음간에서 17개, 설불축

12) ·舌縮而聲深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 ㅣ舌不縮而聲淺<훈민해,015-017>
 13) 선·후행하는 모음이 이중모음인 경우에는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음을 대상으로 삼았다. ‘ㅑ, ㅑ, ㅓ, ㅑ’는 ‘起於ㅣ’하므로 ‘j+단모음’으로, ‘ㅓ, ㅑ’는 ‘二字合用’이므로 ‘w+단모음’으로, ‘ㅑ, ㅑ, ㅓ, ㅑ, ㅓ, ㅑ, ㅓ, ㅑ, ㅓ, ㅑ, ㅓ, ㅑ, ㅓ, ㅑ, ㅓ, ㅑ, ㅓ, ㅑ, ㅓ, ㅑ’는 ‘與ㅣ合用’이므로 ‘단모음+j’ 또는 ‘j+단모음+j’로 분석했다. 그래서 ‘겨쉬’는 ‘ㅑ~ㅕ’로, ‘여스’는 ‘ㅑ~·’로 정리하였다.

모음과 다른 모음간에서 17개이다. 그 외에 모음조화가 파괴된 ‘여스<법화,2,110a>’가 있다.

위의 표를 보면, ㅅ>△의 유성음화는 ·와 ㅡ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설측 모음인 ·~·, ·~ㅏ와 설소축 모음인 ㅡ~ㅡ, ㅡ~ㅓ 사이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우선 ·와 ㅡ는 ㅣ에 비해서 소리가 깊다. 곧 공명도가 크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한 설측, 설소축 계열의 모음이라 하더라도 ·와 ㅡ가 중심이 되는 까닭은 후설모음이기 때문이다. 혀는 끝부터 오그리기 때문에 후설모음일수록 공명도가 커진다. 동일한 맥락에서 ·와 ㅡ가 평순모음인 이유도 설명된다. 원순모음은 ㅛ, ㅜ, ㅡ를 입을 오므리기 때문에 평순모음에 비해서는 공명도가 작다. 그러므로 ㅅ>△유성음화는 선·후행하는 모음의 공명도가 큰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은 유성음 사이에서 ㅅ를 유지하고 있는 단어들의 음운론적 환경을 확인했을 때에만 유의미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동일한 문헌에서 ㅅ를 유지한 단어를 조사하였다.

- (16) ㄱ 가슴<월석,10,2b>, 가지<훈몽,상,5b>, 노새<훈몽,상,10b>, 다스리<월석,13,14a>, 다숫<능엄,8,91b>, 사술<훈몽,하,10a>, 사슴<훈민해,57>, 므스(므슴, 므숫)<석상,6,24a>, 슌식<석상,11,40b>, 슌승<월석,20,13a>, 거술<월석,22,29b>, 벼숫<훈몽,상,7b>, 벼술(벼술)<변소,3,33a-b>, 뿌서리<변소,3,27a>, 뿌설<변소,9,22a>, 게살이<변소,9,10b>, 겨시<월석,21,136a>, 고디씩<석상,21,61b>, 구실<변소,3,46b>, 기습<월석,23,77a>, 년지시<용가,087>, 다시<월석,11,99b>, 디새<월석,20,21a>, 마시<월석,21,45b>, 여숫<월석,10,22b>, 여현<월석,2,53a>, 여숫<속삼,7a>, 이리트시<변소,10,21b>, 이삭<훈몽,하,2b>, 이술<월석,13,54a>, 이시<석상,11,6a>, 이스랏<훈몽,상,6a>, 좌시<월석,2,25b>, 고사리<훈몽,상,8a>, 하숫그리<훈몽,하,12b>, 구술<월석,2,33a>, 우습<훈몽,상,10a>, 부스ㅎ<변소,10,19b>
- ㄴ 밑술<속삼,25a>, 밑슴<월석,21,65b>, 므식엽<석상,21,15b>, 브식<변소,7,13b>, 이숙히<변소,10,26a>, 곡도순<훈몽,상,5a>

형태소 내부이면서, 유성음 사이에서 ㅅ를 유지한 단어들이다. (16)ㄴ은 국어사 문헌에 △와 ㅅ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로, 이를 제외한 단어는 38개이다. ㅅ에 선·후행하는 모음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 설축

· ~ ·	· ~ ㅏ	· ~ ㅓ	ㅏ ~ ㅓ	ㅓ ~ ㅓ	계
0	6	0	3	1	10

• 설소축

ㅡ ~ ㅡ	ㅡ ~ ㅏ	ㅡ ~ ㅓ	ㅓ ~ ㅓ	계
3	6	2	0	11

• 설불축과 다른 모음

ㅣ ~ ·	ㅣ ~ ㅡ	ㅣ ~ ㅣ	ㅣ ~ ㅓ	ㅣ ~ ㅏ	ㅣ ~ ㅓ	ㅣ ~ ㅏ	계
3	4	1		6	1	2	16

ㅓ를 유지하고 있는 단어는 설축 모음간에서 10개, 설소축 모음간에서 11개, 설불축 모음과 다른 모음간에서 16개이다. 그 외에 모음조화가 파괴된 ‘부스ㅎ<변소10,19b>’가 있다.

해당하는 단어가 많지 않아 아쉽지만, ㅓ유지의 음운론적 환경도 경향을 보인다. 첫째, 설불축 모음 ㅣ와 다른 모음 사이에서 △의 빈도는 낮은 반면에 ㅓ의 빈도는 높다. 이것은 유성음화가 공명도와 관련됨을 확인시켜준다. 둘째, △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던 환경인 · ~ ·, ㅡ ~ ㅡ가 여기서는 낮은 빈도를 보인다. 특히 · ~ ·의 경우에는 ㅓ인 경우가 없이, 모두 △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음 사이에 발생한 ㅓ>△의 변화는 선·후행하는 모음의 공명도와 관련된다. 선·후행하는 모음의 공명도가 클수록 유성음화되는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공명도가 가장 큰 모음은 설축의 평순 후설모음 ·이고, 그 다음이 설소축의 평순 후설모음 ㅡ이다. 그러므로 ㅓ>△의 변화는 ·와 ㅡ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특히 공명도가 큰 · ~ · 또는 ㅡ ~ ㅡ 사이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 ㅓ>△의 형태론적 조건

△는 현재 전남방언에서 주로 ㅓ에 대응되지만 ㅓ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전남방언에서도 ㅅ>△>∅가 적용되었음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ㅅ>△의 변화가 중세국어와 전남방언에 반영된 양상을 고찰하여, △음화의 형태론적 적용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¹⁴⁾

- (17)ㄱ ㄱ술 : 가실^[전역]
 구시 : 구수^[장성·함평·나주·무안·영암·해남·진도], 구시통^[영광·함평]
 여수 : 여시^[영광·장성·곡성·광산·신안·목포·나주·무안·영암·해남·진도·강진·장흥·보성·순천·여수·완도·담양·함평·회산], 여수^[함평·회산·승주·광양·고흥·여천·여수], 야시^[광양]
 -아 : -라사^[전역]
 ㄴ 브섭 : 부삽·부삭^[강진·완도], 부석막^[고흥], 부삭·부삭^[광산·곡성·신안·영암·진도·장흥·보성·고흥·여수], 부석^[광양·여천], 부섭^[나주], 부석·부석^[담양·순천·여수], 부석^[담양·함평], 부삽^[무안], 부섭^[영광·광산·나주], 부석^[영광·장성·구례·함평], 부삭^[회산·해남] || 15) 부업^[나주], 부억^[광산], 부억^[광산]
 ㄴ ㅁ술 : 모실^[목포·진도·무안·신안·여수], 모슬^[영암·장흥] || 마을^[곡성·광산·구례·광양·담양·승주·여천·해남·진도·회산·함평·나주]
 ㄴ ㅅ(核) : 좃^[구례], 조시^[구례·광양·여천·승주], 짓^[담양·곡성·회산] || 창^[영광·장성·함평·광산·나주·회산·무안·신안·영암·해남·강진·장흥·완도·고흥], 지^[장성·담양·곡성·보성·장흥·해남·강진·완도], 장^[장성·회산·장흥·해남·고흥], 제^[해남·진도]
 ㄴ ㅈ슴 : 찹^[장성·담양·신안], 찹^[담양]
 ㅅ시 : 새^[구례·광양·여천], 세^[전역(구례·광양·여천 제외)]
 ㅁ슴 : 맴^[전역], 맴^[광산·회산·고흥], 맴^[광양]
 어시 : 엄씨^[장성·담양·광산·신안·광양·순천], 에미^[장성·순천], 엄매^[함평·해남·진도·완도·신안]
 ㄴ ㅄ의- : 무섭다(무서와서~무서워서~무서서)^[전역]
 보스 : 보세기^[담양·목포·함평·무안·신안], 보삭지^[영광]
 어스름 : 어시름^[전역], 어실매^[진도]

(17)은 형태소 내부의 △가 전남방언에 대응된 예이다.¹⁶⁾ (17)ㄱ은 ㅅ가 유지된

14) ㅅ>△의 형태론적 조건도 국어사 문헌을 토대로 분석한 후에, 전남방언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형태론적 환경(형태소 내부, 합성어의 경계, 곡용, 활용 등)마다 ㅅ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ㅅ>△의 형태론적 조건은 중세국어의 △와 전남방언의 ㅅ의 대응관계로만 분석하였다.
 15) 이후의 ||는 ㅅ유지형과 탈락형을 구분하는 표시이다.

경우이고, 17)ㄴ은 사유지와 탈락이 공존한 경우이고¹⁸⁾, 17)ㄷ은 사가 탈락한 경우이다. 그리고 17)ㄹ은 △가 전남방언과 중앙방언에서 모두 서로 나타난 경우이다.

형태소 내부의 △가 전남방언에 대응된 예는 25개이다. 이들의 사유지 양상을 살펴보면, 유지형과 공존형과 탈락형의 수가 16:5:4이다. 곧 형태소 내부의 △는 전남방언에서 대부분 ㅅ에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 (18) ㄱ 기슴 : 지삼메다_{[전역(광양·여천 제외)], 지삼메다_{[광양·여천], 지삼미다_{[담양], 지슴메다_[신안·강진·장흥·완도]}}}
- ㄷ 새 : 가지개_{[고흥], 가지개_{[곡성·승주·구례·보성·고흥·여수·순천], 가지개_{[광양·여천], 까시개_{[광양·여천], 가세끼_{[보성], 가세기_{[순천], 가세_[전역(승주·광양제외)]}}}}}}
- ㄴ 우슴 : 웃음_[전역]
- 브스름 : 부시름_{[영광·함평·담양·구례·신안·나주·화순·승주·광양·진도·완도·해남·장흥·보성·고흥·여천], 부수름_{[장성], 부스름_{[신안], 부수름_{[무안·영암], 부시름_{[담양·곡성·함평·광산] || 부름_[함평]}}}}}
- (19) ㅍ이사리 : 메생이_{[고흥], 메사니_[담양·구례·승주·여천]}
- (20) ㄱ 두서 : 두서너, 두서넷_{[전역], 두세, 두셋_[전역]}
- ㄴ 처섬 : 침_[전역]

(18)~(20)은 합성어의 △가 전남방언에 대응된 예이다. (18)은 용언 어간에 접사가 결합된 경우인데, (18)ㄱ에서는 ㅅ를 유지하고 있고 (18)ㄴ에서는 ㅅ를 탈락시키고 있다. (19)는 중세국어에서 사이 ㅅ이 △로 변한 경우인데, 전남방언에서는 ㅅ를 유지한다. (20)은 중세국어에서 합성어의 앞말 말음의 ㅅ나 뒷말 두음의

16) △는 전남방언에서 ㅈ에 대응하기도 한다. 중앙방언에서도 ‘호사, 아스미’는 ㅈ로 나타난다.

 거의 : 저작이_{[담양], 건자_{[담양], 거진_{[담양·광양·완도·강진], 거지반_{[담양·보성·해남·강진·진도], 거지방_{[담양·신안], 거작_{[담양·신안·진도·완도·보성], 거자_{[담양·화순·나주·보성], 거지_{[보성], 거장_{[순천], 거짐_{[영광·광산·화순·나주·함평·목포·신안·완도·강진·고흥·여수], 거적_{[진도], 거중_[함평]}}}}}}}}}}}

 프성귀 : 푸징가리_{[영광·광산], 푸징개_{[광산], 푸정가리_[담양]}}

- 17) 위에 제시한 예 이외에도 ‘무수, ㄱ슴, 모시-, 아스·아시, 나시, -자새(-車), ㄱ스라기, 거쉬, 수수’ 등이 있다.
- 18) 위에 제시한 예 이외에도 ‘겨슬, 그스름’ 등이 있다.

ㅅ가 △로 변한 경우인데, 전남방언에서는 ㅅ를 유지하기도하고 탈락하기도 한다.

합성어 경계의 △는 현재 중앙방언에서도 대부분 ㅅ로 나타난다.¹⁹⁾ 현재 전남방언에서 △가 탈락한 예로는 ‘우숨>웃음, 처섬>처음, 브스름>부름’만 있다. 이렇게 △가 탈락한 것은 ㅅ>△의 유성음화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합성어의 형태소 경계에서도 ㅅ>△∅의 변화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예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ㅅ>△의 변화를 적용하기에 합성어의 형태소 경계는 좋은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어간 말음 ㅅ을 가진 용언이 활용하는 예이다.

- (21) ㄱ- (그슬씨라<능엄,8,88b>) : 꾀다[전역], ㄱ수다[보성], ㄱ시다[보성], ㄱ십다[보성·완도], ㄱ식다[신안·구례·승주·보성·고흥], ㄱ습다[장흥], ㄱ잡다[장성], ㄱ직다[곡성·고흥], ㄱ집다[담양·광산·화순·목포·함평·장흥·고흥], ㄱ다[해남]
- 낫-(서르 니셔<법화,2,134a>) : 잇다(잇어서)[전역]
- 붓-(腫 부슬 종<훈몽,중,17a>) : 붓다(붓어서)[전역]
- 붓-(息에 브셔<능엄,8,100a>) : 붓다(붓어서)[전역]
- 붓-(다 비샤<월석,148b>) : 뽀수다(뽀사셔)[영광·장성·담양·무안·신안·함평·광산·나주·화순·영암·여수·목포·해남·진도·강진·완도], 뽀속다[곡성·화순·강진·완도·장흥·보성·고흥], 뽀식다[구례·승주·광양·여천·보성·고흥·완도], 뽀구다[영광·광양]
- 옛-(伺는 여셔 슝필씨라<법화,07,114a>) : 옛다[화순·함평·광산], 아세보다[고흥], 여수다[담양·목포·진도·보성·고흥·광산], 옛보다[장성·곡성·나주·담양·영광·영암·강진·장흥·화순·보성]
- 젓-(香氣 저스니라<월석,1,44b>) : 젓다(젓어서)[전역]
- 좃-(銘명은 조슬씨라<월석,25,51a>) : 조수다(조사셔)[전역], 좃다[전역], 쫓수다[전역], 좃다[전역]
- 젓-(집 지셔<월석,20,62b>) : 짓다(짓어서~지어서~져서~지셔)[전역]
- ㄴ- 웃-(깃거 우셔<번소,6,18a>) : 웃다[전역]

중세국어에서 △로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은 전남방언에서 모두 ㅅ로 규칙 활용한 다. 현재 전남방언에는 ㅅ 불규칙 용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방언에서는 ‘웃’만 규칙 활용을 할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불규칙 활용한 다.

19) 손소>손수, 한숨>한숨 등.

따라서 용언의 활용도 전남방언에서 ㅅ>△ 변화를 적용하기에 어려운 환경인 듯하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모습은 이와 상반된다. 중세국어에서 ㅅ 발음 용언이 규칙 활용을 하는 예는 ‘매왓-, 쫓-, 솟-, 벗-·뱃-, 비룻-’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로 불규칙 활용한다.²⁰⁾ 전남방언과 달리 중세국어 용언 활용에서는 ㅅ>△가 적용되는 빈도가 높다. 그러므로 중세국어 용언의 활용에서 ㅅ>△ 변화는 생산적이었던 듯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순우리말에서 발생한 ㅅ>△의 유성음화는 형태소 내부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용언의 활용, 합성어의 형태소 경계, 체언의 곡용이란 형태론적 환경에 점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²¹⁾ ‘단일어>용언의 활용>합성어의 형태소 경계>체언의 곡용’은 형태론적 긴밀성과 관련된다. 곧 ㅅ>△의 변화는 형태소의 결합이 긴밀할수록 적용되는 빈도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22) **솟**<석상,11,22b> : **요**[전역]
 닐[<반소,8,36b>] : **넝**[장성·담양·함평·순천·여수], **닐**[담양], **니얼**[구례]
 자실<훈몽,중,7b> : **체알**[장성·순천], **철히**[진도]
 주신<반소,4,23b> : **쥌**[담양·함평·화순·보성·강진·순천]²²⁾

(22)는 차용어나 한자어의 △가 전남방언에 대응된 예이다. 한자어에서의 △는 전남방언에서 모두 탈락하여 ∅로 나타난다. 순우리말의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한자어 △의 기원이 순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이다. 순우리말의 △는

- 20) 중세국어에 나타난 ㅅ불규칙 용언으로는 ‘-젓-, 깃-(茂盛), 뭇-(蓄積), 옛-(觀), 일벗-(도둑질하-), ㄹ-(切), 똣-(愛), 굿-, 닛-, 닛-, 뭇-, 뭇-, 깃-, 빗-, 앓-, 웃-, 좃-, 좃-, 뱃-’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좃-(>조-), 좃-(>줍-), 뱃-(>뺨-)’은 현대국어에서 발음의 형태가 변하여 ㅅ 규칙 활용과 관련이 없게 된다.
- 21) 현재 전남방언과 중앙방언에서 체언이 곡용할 때 ㅅ>△>∅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22) 이승녕(1960, 39~40)에서는 ‘솟’을 ‘솣’에 대응시키는데, 전남방언에서 ‘솣’과 ‘솣’은 구별된다. ‘솣’은 놀잇감을 이르는 말이지만, ‘솣’은 옷짝 네 개가 모두 젖혀진 상태를 이른다. 그러므로 ‘솣’이 ‘솣’에 대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ㅅ에서 유성음화한 것이지만, 한자어의 △는 원래의 음이다. 그러므로 중세 전남에서도 한자어의 △는 [ʒ]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는 전남방언에서도 △>∅의 변화를 거쳐 탈락하게 된다.

5. 맺음말

이제까지 본고는 국어사 문헌에 나타난 △를 추출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전남방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중세국어의 △가 ㅅ의 이음임을 밝히고, ㅅ>△ 유성음화의 형태·음운론적 조건을 구체화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국어에서 순우리말의 △는 ㅅ에서 유성음화한 ㅅ의 이음이다. 국어사 문헌에서 △는 ㅅ와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전남방언에서는 대부분 ㅅ에 대응되어, 그 기원이 ㅅ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자어의 △는 음소의 기능을 한다. ㅅ와 △가 戌母와 穰母(日母)에 각각 대응되어, 의미를 변별하기 때문이다.

둘째, 순우리말 ㅅ>△의 변화는 선·후행하는 모음의 공명도가 클수록 적용되는 빈도가 높다. 중세국어에서 공명도가 큰 모음은 설측·설소축의 평순 후설모음 ·, —이다. 그래서 ㅅ>△의 유성음화는 ·와 —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특히 공명도가 큰 ·~· 또는 —~— 사이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셋째, 순우리말 ㅅ>△의 변화는 형태소 내부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그리고 용언의 활용, 합성어의 형태소 경계, 체언의 곡용 순서로 적용된다. 형태소끼리의 긴밀성이 높을수록 ㅅ>△의 적용빈도는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본고의 논지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중세국어에서 △가 ㅅ에서 유성음화한 것이라면, 현대국어에서도 ㅅ는 유성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ㅅ가 유성음화되지 않는 까닭을 찾지 못했다. 또한 국어사 문헌에서 ㅅ와 △가 혼기되기는 하지만, 그 빈도가 의미를 지닐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왜 유성음화한 △가 정연하게 표기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본고의 △(<ㅅ) 이음설은 가설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또한 ㅅ의 유성음화는 ㅂ(>빙)의 유성음화와 함께 검토되었을 때에야 적용 조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주제어 : 전남방언, 유성음화, Δ , 음운론적 조건, 형태론적 조건, 공명도.

< 참고문헌 >

- 강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 김완진(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형규(1962), 『국어사연구』, 일조각.
- 도수희(1987), 『한국어 음운사 연구』, 탐출판사.
- 박창원 편(2002), 『국어 음운 연구사(1)』, 태학사.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 지리』, 국어학 총서 11.
-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 이기문(1969), 「中世國語 音韻論의 諸問題」, 『진단학보』 32.
- _____(1972), 『국어 음운사 연구』, 국어학 총서 3.
- _____(1998),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돈주(1988), 「훈민정음의 해설」,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 이승녕(1960), 「△音攷」, 『국어학논고』, 동양출판사.
- 전광현(2003), 『국어사와 방언 1, 2』, 월인.
- 최명옥(1978), 「봉, △와 東南方言」, 『어학연구』 14-2, 서울대 어학연구소.
- _____(1997), 「국어의 통시음운론 개관」, 午樹 田光鉉·宋敏 先生の 華甲을 기념하여 『국어사연구』, 태학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영균(1997), 「모음의 변화」, 午樹 田光鉉·宋敏 先生の 華甲을 기념하여 『국어사연구』, 태학사.

[Abstract]

The -s- > -z- intersonorant voicing

Wee Jin

This is a study of Jeollanamdo dialect about a sound '/z/(Δ)' which is from the historical literature. This research aims to prove '/z/(Δ)' was allophone of '/s/(ʌ)' and to be concreted its intersonorant voicing conditions of morphology and phonology. Follows are conclusions;

(1) In the Middle age Korean, a sound '/z/(Δ)' was an allophone of '/s/(ʌ)' by intersonorant voicing sound of '/s/(ʌ)'. In historical literature, '/z/(Δ)' & '/s/(ʌ)', they were not a minimal pair. Moreover it matched with Jeonnam dialect '/s/(ʌ)' which is original form '/s/(ʌ)'. The other hand, sino-Korean '/z/(Δ)' was a single consonant. It was a word-initial '/s/, /z/' and it had their own meaning.

(2) '/s/>/z/' as original Korean had showed often between high-sonority vowels. In Mid-age Korean, high-sonority vowels were '/·/, /-/' ; unrounded back vowels-mid, high vowels. Therefor '/s/>/z/' intersonorant voicing happened with '/·/, /-/'. Especially it applied this condition, that is between high sonority vowels like '/· ~ ·/, /- ~ -/' over another conditions.

(3) '/s/>/z/' as original Korean, applied on inside of morpheme at first. And then applied on boundary of a complex word, an inflected word, an uninflected word. It means '/s/>/z/' application showed up more frequently with closed morphemes.

【Key words】 : Jeonnam dialect, inersonorant, '/z/(Δ)', phonological

environment, morphological environment, sonority.

위 진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자우편 : baezangi@hanmail.net

이 논문은 2009년 5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5월 29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